

2024. 2. 19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 
소상공인담당관

소상공인담당관

최선헌

02-2133-5530

소상공인지원팀장

한봉기

02-2133-5538

사진 없음 ☒ 사진 있음 ☐ 쪽수: 2쪽

### 서울시, 5월 광화문에서 고품격 K푸드 야시장 개장 준비... 미식명소로 조성

- ‘광화문 푸드마켓’ 5월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수~일 21시까지 운영
- 방문하기 쉽고 볼거리 많은 광화문에 조성되는 한식 중심 고품격 미식 관광명소
- 공간구성부터 참여상인 관리까지, 야시장 총괄 운영 용역사 27일(화) 17시까지 모집

☐ 서울 대표 야간 명소 ‘한강달빛야시장’의 명성을 이을 새로운 콘셉트의 야시장이 오는 5월 시민들을 찾아간다. 누구나 방문하기 쉽고,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서울 중심에서 열리는 ‘광화문 푸드마켓(가칭)’이 그 주인공.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푸드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서울 대표 미식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☐ 서울시는 ‘광화문 푸드마켓’을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오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주 수~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.

- ‘광화문 푸드마켓’은 지난해 약 60만명이 방문한 기존의 ‘한강달빛야시장’에서 올해는 한식 중심의 고품격 야시장 콘셉트로 특화하여 운영될 계획이다.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콘셉트 기획, 네이밍, 그래픽 디자인 등을 위한 별도의 브랜드 개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.
  - ’23년 한강달빛야시장(총 11회 개최): 방문객 약 60만명, 매출액 약 19억원
- ‘광화문 푸드마켓’의 특징은 건강한 K푸드를 서울 대표 관광지에서 시민과 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판로를 제시하는 데 있다. 특히 특색있는 음식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야외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MZ세대에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광화문 푸드마켓을 총괄 운영할 용역사를 공개 모집한다. 모집 기한은 27일(화) 17시다.
  - 선정된 용역사는 푸드마켓 공간구성부터 시설물 및 방문객 안전관리 등 운영 총괄, 참여 상인 선정(공모·심사) 및 관리(위생점검, 협의체 운영), 식음료 기업과 공동사업·후원·관측 등 소상공인 상생협력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.
- 입찰 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‘행사대행업’ 또는 ‘광고대행업’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며, 세부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 등은 나라장터 누리집([www.g2b.go.kr](http://www.g2b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제안서·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3월 중으로 업체 최종 선발 예정이다.
- 최선히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“K푸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광화문 푸드마켓을 통해 서울 야간 명소 야시장을 고품격으로 끌어올릴 계획”이라며 “광화문 푸드마켓의 성공적 개최로 광화문을 서울대표 미식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”고 말했다.